아시안 게임 참가로 본 김정은 체육정책

전영선(건국대)

1.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과 내고향 축구단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북한은 선수단과 지원 인력을 포함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전체 규모는 축구를 비롯하여,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출전한 선수 107명과 지원인력을 포함해 180여 명이었다. 스포츠 대회 참가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북한 선수단 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 게임 이후에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에도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 리분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탁구 한 종목에만 선수단을 파견하여, 선수단 규모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려는 정책은 확인할 수 있다.

2026 아시안 게임에 앞서 5월 20일에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북한 내고향여자 축구단과 수원FC 위민의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이 있었다. 여자 챔피언스리그는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클럽대회로, 회원국의 클럽이 참가하여 벌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이다. 한국 WK리그의 수원FC 위민이 8강전에서 중국 우한 장다를 이기고 준결승과 결승전 개최지가 대한민국 수원종합운동장으로 확정되면서 남북 클럽 팀의 맞대결이 성사되었다. 북한도 세미 프로 형식으로 승강제를 도입한 리그를 운영하고 있다. 내고향팀은 무역회사인 내고향합작회사의 후원을 받는 클럽팀이다. 내고향합작회사는 '내고향' 브랜드의 담배를 비롯하여, 주류, 스포츠용품, 식품 등의 사업을 한다. 2023-2024 시즌 리그에서 우승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한 것이다. 내고향팀의 방한은 북한 여자 클럽팀으로서는 첫 사례이고, 북한 체육팀이 남한을 방문한 것도 2018년 이후 8년 만이었다.

경기 전에는 북한이 과거 정치적인 이유로 체육대회 참가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냉랭해진 남북 관계 때문에 내고향팀이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내고향팀은 참가하였다. 내고향팀은 입국부터 경기 전후에도 참가 배경이나 소감을 묻는 인터뷰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경기 후에도 소감을 묻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했다. 북한 로동신문도 한국에서 수원FC 위민과 경기하였다는 내용을 단신으로 보도하였다. 북한은 내고향팀의 방한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로만 의미를 제한하였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 참여하지만 정치적 의미를 배제하려는 태도는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도 확인되었다. 여자축구 조별리그 '조1위 결정전'이 끝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팀의 박성진 감독은 경기 후에 양 팀 감독이 악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축구만 하지 다른 거 뭐 할 거 있습니까. 기자 선생님들 자꾸 나한테서 별난 질문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 EAI 2026

감독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 '다른 것은 없다'고 하였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국가를 대표해 벌이는 국제 스포츠 무대 자체가 치열한 국가 대항전이다. 애써 냉랭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냉랭한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서 열린 대회에 내고향팀을 보냈고, 아시안 게임과 아시안 패러게임에 참가한 배경은 무엇인가? 북한은 앞으로도 개최 장소와 국가를 가리지 않고,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은 김정은 시기의 체육 정책 기본과 정책 방향에서 논거를 찾을 수 있다.

2. 김정은 시기 체육 정책

북한 여자 축구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직 축구를 하러 왔다.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 체육은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 체육의 정책 방향과 목표는 물론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김정은의 이름으로 집행된다.

김정은 시기 북한 체육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한 것은 2015년 3월 25일 김정은이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이 붙은 이 서한은 노동당을 대표하는 김정은의 체육 정책 인식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담았다. 이후 북한 체육 정책 수립의 기틀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 발전은 노동당의 결심이며, 확고한 의지임을 밝혔다. 김정은은 체육의 역할에 대해, "체육은 국력을 강화하고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며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온 사회의 혁명적 기상이 차넘치게 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체육을 발전시켜 체육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당의 목표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체육인들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자각하여, "빠른 시일안에

ⓒ EAI 2026

나라의 체육기술을 세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고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체육의 과학화수준을 높여 당의 체육강국"을 건설하려는 구상을 실현하자고 하였다.

둘째, 체육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패권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목표는 나라의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패권을 쥐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체육인들에게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사람들은 체육인들밖에 없으며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치는 것은 체육인들의 성스러운 임무"라고 하였다.

셋째,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기반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은 현재 북한 체육 현실이 '전반적 체육 기술이 세계적 추세에 비해 뒤떨어졌고, 체육의 과학화 수준과 물질기술적인 토대도 미약하며, 체육 부문의 강한 규율과 질서도 서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문제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체육열풍 확산이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육 대중화, 생활화, 학교 체육 개선, 체육과학화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강조한 것은 체육과학화였다. "체육강국건설에서 승리의 열쇠는 체육을 과학화하는데 있습니다."라면서, 체육교수, 기술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첨단 설비, 측정기재, 시약 등의 연구조건을 보장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섯째, 결정적으로 전반적 체육 발전을 위한 지도체계로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힘을 실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2년 11월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 '체육 분야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한 체육정책 총괄기구이다. 내각에 체육정책을 담당하는 체육성이 있는데, 체육성은 주로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집행 기구인 반면,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 EAI 2026

국가기구이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당시 북한 정권의 실세였던 장성택이 위원장을 맡았었고,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에는 최룡해가 위원장을 맡는 등 북한 최고 실세가 담당할 정도로 위상이 높다. 최룡해 이후 2025년까지는 내각 총리 김덕훈이, 2026년 현재는 노동당 선전선동 비서인 리일환이 맡고 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시군 단위별로 체육지도위원회가 있어서 체육정책을 주도한다.

3. 김정은 시기 체육 정책과 국제 대회 참여

북한은 국제 체육대회에 개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서한에서 체육 발전이 당의 목표임을 확인했고, 체육발전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체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제 체육기구와의 협력 사업으로 초청경기, 원정경기, 공동 훈련을 진행하고, 선수들을 국제경기에도 많이 참가시켜 기술 수준을 높이고, 실전 경험을 쌓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종목도 지적하였다. 신체적 조건에 맞고,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종목인 여자축구, 마라톤, 역기, 권투, 탁구, 레슬링, 유도, 기계체조, 양궁을 우선 육성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른 종목을 발전시키라고 하였다. 북한 내고향팀의 수원 경기나 아시안 게임 참가는 국제 정치적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스포츠를 통한 내부 결속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내부 정치적인 측면이 더 컸다.

북한은 국제 사회에 정상국가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국제 스포츠 대회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체육인들에게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북한 감독은 ‘정치’가 아닌 ‘오로지 경기’를 이야기했지만, 이는

ⓒ EAI 2026

민족이 아닌 국가적 우월성과 정치적 동원이 포함된 스포츠 내셔널리즘(Sports Nationalism)의 반영이었다.

북한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 스포츠 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스포츠 분야는 종목별 대회도 많고, 교류 형식도 다양하다. 국제 스포츠계 역시 스포츠 평화를 구현하는 장으로서 남북관계에 주목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 가능성도 매우 높다. 스포츠를 통한 교류의 기회를 적실하게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스포츠 교류라는 목적에 우선 무게를 두고 접촉의 공간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 EAI 2026

■ 저자: **전영선**_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송채린**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11) | crsong@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발행일 2026년 11월 20일 979-11-7584-187-1 95340
"아시안 게임 참가로 본 김정은 체육정책"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 EAI 2026